‘기괴’에서 ‘괴기’로, 식민지 대중문화와 환멸의 모더니티*

김지영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교수

논문분야 한국 근대문학

주 제 어 공포, 취미, 괴기, 기괴, 모던, 모더니티, 대중문화, 식민지, 일상, 계몽, 취미 독물, 괴담, 기담, 그로테스크, 에로-그로-넌센스, 별건곤, 삼천리

요 약 문

오늘날 ‘괴기’는 야만성, 미개성, 전근대 사회의 마술성과 미성숙성을 표상하는 어휘이다. 그러나 정작 중세 한국에서 ‘괴기’와 ‘기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중세의 ‘기괴/괴기’는 종종 빼어난 문장과 산수를 경탄하는 수사로 활용되었고, ‘괴기’와 동일한 한자로 구성된 ‘기괴’는 1920년대 중반까지 미디어에서 오히려 합리성을 증식시키기 위한 반어적 수사로서 계몽의 언설에 동원되곤 했다. ‘괴기’가 공포와 잔혹성, 신비를 표상하는 취미 기호가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식민지 시기 ‘괴기’의 취미는 주술적인 관습의 잔재에 의거하거나 혹은 억압되어 있던 자기 안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내부의 잔인성과 야만성의 귀환을 직시하게 되는 자발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괴기’의 취미는 소비적 대중문화의 발전, 지식인의 관심을 정치에서부터 이탈시키려는 식민 제국의 의도, 계몽의 좌절로 인한 나르시시즘적 상처, 국경 너머의 타자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과 앎에 대한 욕망 등의 복합 속에서 탄생했다. 에로-그로 문화와 그로테스크 개념의 유입 및 울트라 모던의 유흥적 기호 등의 외부적 요소와 계몽의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절망,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던에 대한 양가적 환멸과 자학적 냉소주의가 잔혹성과 공포, 마술적 신비를 표상하는 ‘괴기’의 새로운 취미 기호가 성장하는 저변

* 접수(2010.5.26), 심사 및 수정(2010.6.14), 게재확정일(2010.6.14)

을 형성한 것이다. '모던'으로 표상되는 식민지 중기 대중문화의 유흥적인 기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괴기'는 종종 '괴담'이라는 기표와 결합하여 오히려 전근대적 전설과 미개의 시대를 표상한다. 근대의 산물인 취미 기호가 그 태생을 은폐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을 전근대의 그것으로 전도시키는 현상은, 내부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대의 자기 운동 방식을 확인해 준다.

1. 들어가며

'괴기'라고 하면 요괴, 귀신, 유령, 괴물 등이 떠오른다. 어둡고 야수적인 본성과 마술적인 공포가 지배하는 세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도 없는 잔혹하고 초자연적이며 음울하고 신비한 세계가 오늘날 '괴기'가 표상하는 세계이다. '괴기'는 또한 아직 과학적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전근대와 야만을 표상하는 어휘이기도 하다. 합리적 이성과 윤리의 여과를 거치지 못한 잔인하고 충동적인 본성, 자아와 타자, 주체와 세계 간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미분화되고 애니미즘적인 사고, 점액 · 타액 · 오물과 같이 미끈거리고 혐오스런 액체들을 뒤집어쓴 미성숙한 존재, 사무치는 원한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초자연적 힘으로 산 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요괴와 귀신들이 지배하는 전설의 세계 등등, '괴기'가 연상시키는 것은 근대의 과학과 합리적 이성으로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미분화, 미발달, 미성숙한 존재와 사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술적 힘들이다. 합리와 비합리,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타자,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 등 다양한 이분법의 경계를 표상하고 교차시키는 관념으로서, '괴기'는 신화 · 전설의 영역과 같은 근대의 타자들을 지칭하는 동시에 이 타자들을 쾌와 연결짓는 흥미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괴기라는 말이 지금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괴기'가 전근대와 야만의 시대를 연상시키고, 근대적 합리성의 저편에서 마술적이면서도 잔혹하고 비윤리적인 세계를 지칭하게 된 것은 적어도 식민지 중반이 지나서부터였다. 어둡고 음울한 욕망과 충동적 쾌락 욕구를 긍정하고, 야만적, 초자연적, 비윤리적, 전근대적 세계를 재현하고 엿보는 것으로부터 감각적 만족을 느끼는 문화적 기호의 발생은 근대 도시의 발달과 소비문화에 긴밀히 연관된다. 신문 · 잡지 등 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대중적 정보 소통이 가능해지고, 백화점, 카페, 극장, 공원 등에서 문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대중 계층이 성립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문화적 취미의 하나로서, '괴기'의 취미는 '모던'이라는 신문명의 감각 위에서 탄생했다.

이 글은 한국에서 이 같은 '괴기' 취미가 형성된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이 과정을 추적하는 첫 단계로서 1900년대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기괴/괴기' 개념을 개념사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1] 개념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대의 '괴기' 취미가 그 대상의 하나로 삼는 전설의 현장, 즉 전근대 사회에서 '기괴/괴기'라는 어휘는 현재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데 있다. '기괴/괴기'의 의미 변화는 '괴기'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문화 계층의 등장과 긴밀히 연동된다. 근대 도시의 발달과 새로운 물질문화,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소비 계층의 등장, 대중 미디어를 통해 흡수되고 소통되는 새로운 형태의 공통 감각 등이 이 같

1) 이 논문은 2010. 5. 7~8,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 본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과정」, 『추리서사와 대중문화: 2010 대중서사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단(『현대문학이론연구』 4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6.30에 수록 예정)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을 확장한 결과물이다. 윗글에서는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과 분화 과정과 관련하여 '기괴/괴기' 개념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개념사의 관점에서 이 개념의 전반적 의미장과 시대적 변화 및 사회 문화와의 관련성을 탐구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탐정소설과 그로테스크에 관한 논의는 윗글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중첩됨을 밝혀 둔다.

은 개념의 이전과 신취미 형성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언어와 사회 문화적 지반의 변화를 연동시키고 양자를 능동적인 상호 교섭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개념사적 접근 방식이 유효한 것은 이 때문이다.[2)]

2. '기괴(奇怪)/괴기(怪奇)'라는 말

한자 '奇'와 '怪'의 결합으로 구성된 '奇怪', '怪奇'는 전근대 시대부터 활발하게 사용되는 말이었다. '다르다, 괴이하다, 뛰어나다, 돌연하다'[3)] 등의 의미를 지닌 '奇'와 '특이한 것(異), 행동이나 마음 · 모양 등이 비상함, 常에 반대되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사물'[4)] 등을 가리키는 '怪'가 어울려 쓰인 것은 두 글자 모두 '常',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것을 지시하면서도 '奇'와 '怪'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 奇가 常을 이탈한 가운데 뛰어난 것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과 달리, 怪는 '미혹됨', '의심스러운 것'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었기 때문이다. 『대한화사전』에서 '怪奇'는 '怪異하고 奇特한 것'으로, '奇怪'를 '1) 보기 드물게 신기하고 특이하여 일반적이지 않음, 2)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3) 특이함을 알다, 驚氣하다'로 풀이된다. 양자 모두 '다름', '정상에서 벗어남'이란 의미를 중심으로 그에 따르는 정서(奇特하다, 驚氣하다)까지를 그 의미 내에 포함하고 있다.

중세의 문헌에서도 '기괴'와 '괴기'는 '드물고 특이하여 일반적이지 않다'는 형용적 의미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적 의미로 겸용되어 쓰였는데, '기괴'의 용례가 '괴기'보다 4배 정도로 많았다.[5)] 주목되는 것은 '기괴'와 '괴기' 모두 부정적인 의미 이상으로 긍정적인 것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① 그 자체(子體)가 기괴(奇怪)하여 神人이 쓴 것 같고 사람의 필력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6)]

② "동파(東坡)의 주행시(舟行詩)에 괴기(怪奇)한 시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잊어 한두 글자도 욀 수 없으니 한스럽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자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暗潮生渚 落月挂柳라는 시가 아닌가?" 하니, 그 사람은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7)]

③ 기기괴괴한 천태만상 원래 저절로 구별되고(怪怪奇奇元自別) 뾰족하고 쇄세한 것들 서로 고르지 않구나(尖尖碎碎不相侔) 르는 물 빼어난 산 여기가 어드메뇨(爭流競秀斯何地)[8)]

④ 뜰 가운데 있는 대(臺) 위에 배열한 동기(銅器) · 석물(石物) 또한 기괴(奇

2) 식민지 대중문화에서 '괴기'의 문제를 탐구한 선행 연구로는 박숙자, 2005, 「괴기에서 넌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호, 175~195쪽; 채석진, 2005,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5호, 43~86쪽; 소래섭, 2005,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김예림, 2004,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을 들 수 있다. 에로 그로 넌센스를 탐구한 연구들은 이 표어가 식민지 첨단의 대중문화로 나타난 저변을 고찰하는 가운데 '그로'라는 새로운 기호의 등장을 지적했다. 채석진이 제국주의적 위계 질서의 조선적 내면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소래섭은 카니발적 축제 문화의 근대화라는 측면에 주목했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김예림은 식민지 조선이 타자를 상상하는 방식이 에로-그로 취향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한편, 박숙자의 연구는 여성 인물의 재현 과정의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적 자료로서 奇와 怪의 수사가 비여성적 독물에서는 '불가해한 현실'을 '알 수 있는 현실'로 번역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기괴/괴기'에 대한 개념사적 정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로-그로 문화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한화대사전』(1983), 臺北: 名山出版社.

4) 『대한화사전』(1968), 동경: 大修館書店.

5)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번역종합DB에 따르면, 奇怪는 『조선왕조실록』에 21건, 『한국문집총간』에 376건 사용되었다. 이에 반해 怪奇는 『조선왕조실록』 1건, 『일성록』 1건, 『한국문집총간』 98건이 검색된다. 단, 이 결과는 번역문에 의거한 것으로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허목, 「跋許上舍珣家藏金生眞蹟」, 『眉叟記言 記言別集』 10권.

7) 정약용, 「貞軒墓誌銘」, 『다산시문집』 15권.

8) 이유원, 「正陽寺, 歇惺樓」, 『林下筆記』 37권.

怪)하여 이루 다 형용할 수가 없다.[9)]

⑤ 처음에는 문은 도(道)를 싣는 그릇이라 일렀다가 이윽고는 그 그릇만을 취하고 그 싣는 것은 잊었으며, 종말에는 그 그릇만을 쓰고 그 싣는 것을 변경하여, 박잡(駁雜)·음예(淫穢)·황탄(荒誕)·괴기(怪奇)한 물건을 잘못 문이라 하였고, (…) 세상을 현란하게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에 달했었다.[10)]

⑥ 대체로 경신년 이후로 국가에 일이 많고 세도(世道)가 매우 험난하여 천기백괴(千奇百怪)한 무리들이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11)]

①, ②, ③, ④의 예와 같이, 중세의 문헌에서 '기괴'와 '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서화의 빼어남이나 산천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사례였다. 奇와 怪가 지칭하는 비정상성이 묘사하기 어려울 만큼 빼어난 서화나 문장, 기암괴석과 수목 산천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양태를 형용하는 데 쓰임으로써 월등함, 탁월함, 훌륭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奇怪와 怪奇의 배열 순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두 글자의 결합은 탁월한 형상에 대한 경탄의 감성을 동반했다. 이와 달리 ⑤와 ⑥에서는 奇와 怪가 지칭하는 비정상성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⑤에서 '괴기'는 박잡, 음예, 황탄과 동급에 놓이며, ⑥에서 '기괴'는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사특한 무리의 성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근대 사회에서 '기괴'와 '괴기'가 표상하는 비정상성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었으며,[12)] 대상의 비정상성이 띠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성격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

9) 이갑, 「정유년(정조 1년) 12월 27일」, 『燕行記事』 상권.

10) 李瀷, 「有敎無類」, 『星湖僿說』 25권.

11) 「副校理金敎喜疏」, 『朝鮮王朝實錄』, 순조 19년 기묘년 윤 4월 6일.

12) 다음의 예에서 '기괴'는 조물의 성격 자체로 설명하기도 한다: "조물의 뜻이 워낙 기괴하니(造物足奇怪) 부생의 미래를 알 수나 있나(浮生無定期)". 李穀, 「賦順菴猥系」, 『稼亭集』 17권. 사물의 복잡 다단한 양태는 신묘한 조물 자체의 본성이고, 그것의 바른 쓰임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여 올바르게 인도하는 인간의 수양과 도덕에 달려 있었다.

에 따라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순수한 모양 형용이 아니라 ⑥과 같이 사회적, 윤리적 질서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비정상성이 지닌 속성상 긍정적인 의미를 띠는 예가 발견되기는 어려웠다.

전근대 사회의 용법은 근대 계몽기에도 지속되었다. 1897년 발간된 『한영자전』[13)]은 '긔괴ᄒᆞ다' 라는 항목에서 한자 '奇恠'를 부기하고 그 뜻을 "to be marvelous, to be odd, to be strange"로 풀이했다. '기괴'가 '다름'을 지칭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전통이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다. 이 사전은 '괴기(하다)'는 싣지 않았는데, 실제로 한글 표기를 지향했던 근대 계몽기의 문헌에서 '괴기'의 용례는 매우 드문 편이다. 문헌의 경우와 달리 구어 사회에서는 '괴기'가 그다지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근대 계몽기 문헌에서 '기괴'는 중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석벽이 긔괴ᄒᆞ다",[14)] "형상이 긔괴ᄒᆞ다",[15)] "긔괴ᄒᆞᆫ 물건",[16)] "혹독ᄒᆞ며 긔괴ᄒᆞᆫ 큰 젼장"[17)] 등 범상치 않은 모양을 형용하는 데 동원되었고, "긔괴하고 흉악ᄒᆞᆫ 것",[18)] "음담패셜 긔괴ᄉᆞ"[19)]와 같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다.

1920~1930년대 전반까지 '기괴'의 용법은 실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① 「기괴한 기형아—두 귀가 업고 6손 6발 쌍언청이까지 겸한 병신」, 『조선일보』 1923년 9월 23일자.

13) 제임스 게일, 1897, 『한영ᄌᆞ뎐』, Yokohama Bunsha, 230쪽.

14) 이 표현은 성류굴의 내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대한고젹」,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2일자.

15) 소금기둥으로 변한 여성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 기둥의 모양을 설명하는 데 쓰인 말이다. 존 번연(1895), 『텬로력뎡』, 제임스 게일 역, 130장 앞면.

16)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을 설명하는 수사이다. 『신학월보』(1902.12).

17) 「상공업의 큰 젼쟝」, 『대한매일신보』 1909년 4월 25일자.

18) 존 번연(1895), 앞의 책, 141장 앞면.

19) 「시ᄉᆞ평론」, 『대한매일신보』 1910년 1월 23일자.

② “노락노락하게까지 지진머리를 새 집 갓치 틀어언고 희고푸른 분 새벽을 한 얼골을 애교나 잇는 듯이 기괴이하게 휘저으며 웃는 꼴들을 볼 때에 참으로 한심치 안을 수 업다.” 조재호, 1928, 「모더-ㄴ 男女와 生活改善」, 『별건곤』 16 · 17호.

③ “모든 자연의 奇怪를 볼 때 날듯도 하고 뛸듯도 십흔 호기가 만장이나 나지 안트냐,” 박달성, 1926, 「중학생과 하기방학」, 『개벽』 72호, 49쪽.

④ “公의 遺物이 우리 民族에 남긴 바 功勳이 크고 기괴기괴 追憶 새롭다 할진대,” 박윤석, 1931, 「이충무공묘 참배기」, 『삼천리』 16호.

⑤ 「기괴한 사기배—부고를 위조하여 금전을 편취한 자」, 『조선일보』 1926년 2월 20일자.

⑥ 「기괴한 살인사건, 노부부를 곤봉으로 타살—강도의 소위인지 사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조선일보』 1926년 1월 8일자; 「자살한 3여생 멀쩡하기 생존? 기괴 복잡한 사건 내용」, 『조선일보』 1927년 6월 16일자.

⑦ 「신흥학교의 기괴사—총독을 出迎치 아니하얏다고, 이백 명 학생을 휴학시키고 교원들까지 사직을 하라고」, 『조선일보』 1924년 5월 26일자; 「왕자제지와 총독부간 기괴한 국유림 매매」, 『조선일보』 1929년 3월 13일자.

⑧ “국내에서 별별 기괴한 일이 만히 일어난다. 산도적놈이 나오며. 바다도적놈이 나오며. 사람을 죽이는 청부업자가 나와 온 국내를 횡보활보한다.” 쑴길, 1921, 「탐정소설 전율탑」, 『학생계』 6호, 35쪽.

⑨ 「12살 먹은 아이를 돌로 쳐 죽여 또다시 못 가운데 넣은 기괴한 일, 의운중첩한 괴사건」, 『조선일보』 1927년 3월 23일자.

⑩ 「호남의 기괴한 신종교—교를 미들 때에는 재산 전부를 바치는 법, 교를 미드면 총알이 몸에 맛지 안는다고」, 『동아일보』 1921년 3월 11일자.

⑪ “기괴한 米신문의 악선전 (…) 중국인의 악선전을 하기 위하야 근거업는 허위의 기사를 만히 냇섯다.” 「상투에 갓쓰고 미국에 공사갓든 이약이」(1926. 12.1), 『별건곤』 2호, 10쪽.

⑫ 「재앙 따라 변색 기괴한 靈泉—토색화한 장성 『방울뱀』 부근 주민은 당

산제에 분망」, 『조선일보』 1928년 2월 24일자.

1920~1930년경까지 문헌에서 ‘기괴’는 괴상한 기형 이태의 형용(①), 괴상한 행위/행동의 형용(②), 묘사 불가능할 만큼 멋진 모양의 형용(③), 훌륭하다(④), 교묘하다(⑤), 수수께끼와 같아서 도무지 알 수 없다(⑥), 부당하다 · 불합리하다(⑦), 상서롭지 못하다(⑧), 끔찍하고 충격적이다(⑨), 사악하고 요사스럽다(⑩), 근거 없이 허황되다(⑪), 주술적이다(⑫) 등등 다양한 용법을 보인다. ①~④가 모양 형용에 해당한다면, ⑤와 ⑥은 비정상적 모양에서 연상되는 이해 불능의 상태를, ⑦~⑪은 그로부터 기인하는 정서적 효과와 윤리적 판단을 가리킨다. 1920년대 후반까지 ‘무섭다’, ‘추하다’라는 의미는 그리 도드라지지 않는다.

특징적인 것은 중세와 같이 비정상적 형상을 탁월하고 훌륭한 것으로 묘사하는 ③, ④와 같은 용례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증가하는 것은 ⑦~⑪과 같이 부정적 정서와 판단들이다. 이는 奇와 怪가 가리키는 ‘차이’와 ‘다름’이 불합리성과 자주 연계되어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⑫에서 보는 것처럼 전근대적 미신을 다루는 기사의 헤드라인은 종종 ‘기괴’ 라는 어휘로 시작했다. 「기괴한 악마, 허황한 미신으로 사람을 죽게 한 자」(『조선일보』 1924년 11월 29일자), 「아프리카 토인의 기괴한 비비는 祭 —소를 잡고 쇠뭉치를 내두르며 구름을 불러 비오기를 빈다고」(『조선일보』 1925년 4월 22일자), 「정신병자를 발바닥으로 치료? —성신 받았다는 여인이 기괴망측한 미신행위」(『조선일보』 1926년 5월 18일자), 「기기괴괴한 여 샤만의 병 치료—병자의 피를 빨아 열병 치료」(『조선일보』 1927년 10월 8일자), 「기괴한 풍설—배암을 낫다는 소문이 굉장하여 가서 보니 風症患者」(『동아일보』 1921년 3월 22일자) 등등 주술에 의존하는 미신적 행위는 ‘기괴’하다는 언표를 통해 비판적으로 언술되었다. 이때 ‘근거 없이 허황되다(⑪)’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괴’는 곧바로 대상의 ‘주술성’(⑫)과 직결되었고, 따라서 그 자체가 척결되어야 할 미신을 표상했다.

척결되어야 할 비합리적 미신, 풍속이 '기괴'의 기표와 직결된 것이 이질적 대상을 형용하는 '奇', '怪'의 속성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부당하다 · 불합리하다(⑦)라는 의미의 활성화는 당시의 시대상과 긴밀히 연동되는 현상이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신문에서 '기괴'의 다양한 의미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빈번히 등장했던 것은 부당하다 · 불합리하다(⑦)는 뜻이었다.[20] 「일부 다처의 주의—土耳期 국민의회에서 지정된 기괴한 서양 법률」, 「農監의 기괴한 수단 (…)돈밧고 소작권 줌」, 「조선인의 승선을 거절—불량 선인은 위험하다고, 기괴한 선장의 거절 이유」, 「울산군청의 기괴한 명령」 등의 예에서 보듯, 신문은 식민지 기관과 관리의 불합리한 법률, 처우, 행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에 이상성(異狀性)을 표상하는 '기괴'의 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한편, 1920년대 중반까지 『개벽』, 『별건곤』 등의 잡지에서는 조선인의 습성을 비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 '기괴/괴기'를 동원했다.

> 원래-依賴와 孤立이라 함은 全然히 성질이 상이한 모순적 양 측면인데 우리 朝鮮人은 그 모순된 양 측면을 둘 다 아울러 가지고 잇게 되엇슴은 한 기괴한 현상이라 하겟다.[21]

> 李朝 500餘 年 동안 淸貧主義의 暴威下에 許多한 우숨거리와 奇怪한 일도 만히 發生되얏나니 다른 例를 들 것 업시 그 前에 서울 南山골에서 굴머가며 漢文 읽던 書房님들의 이약이만 聯想해 보아도 알 것이다.[22]

20) 예컨대, 1923년 『동아일보』의 기사 가운데 '기괴'를 헤드라인에 붙인 사례는 총 17건에 해당하며 이 중에 7건이 부당하다(⑦)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 ⑩이 4건, ⑥이 3건, ⑫가 2건, ④가 1건에 해당한다. 같은 해 『조선일보』의 경우는 총 14건 가운데 6건에서 '기괴'가 부당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1) 이돈화, 1921, 「혼돈으로부터 통일에」, 『개벽』 13호, 7~8쪽.

22) 이민창, 1925, 「조선의 경제적 파멸의 원인과 현상을 술하야 그의 대책을 논함(상)」, 『개벽』 59호, 27쪽.

> 과도기에 잇는 우리 사회에서 농촌 문제를 등한에 붓치는 듯한 기괴한 경향이 보히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 또 하나 기괴한 것은 농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두 억개에 메고 있는 농학생 그네들의 태도이다.[23]

> 우리나라에는 과학적 지식이 아즉 보급이 되지 못하야 별별 기괴한 오해, 억측, 전설 등이 頗多함니다.[24]

『개벽』과 『별건곤』에서 발췌한 위 인용문들에서 '기괴'는 조선인의 의존적인 생활 습성, 체면을 앞세우는 허위의식, 청년 학생들의 나태한 태도, 과학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오해와 억측 등등 조선인의 불합리한 생활과 의식을 비판하고 합리적 태도의 확립을 촉구하는 비판적 언표로 기능한다. '기괴'가 함축하는 비정상성이 합리성에 어긋나는 일체의 인습과 태도, 현상들을 형용하면서 합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반어의 수사로 활용되는 것이다. 비판의 시선이 미치는 영역은 대단히 넓었다. 조혼,[25] 노예근성[26] 허례허식[27]과 같이 허위적인 전통 인습이 '기괴망측'한 것으로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왜복과 게다의 유행,[28] サン, 주사, 나-리와 같은 호칭[29] 등 왜색 짙은 문화가 날카롭게 꼬집혔고, 양복 위에 복건을 쓰는 상가의 풍습,[30] 음탕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풍속,[31] 음풍농월하는 태도[32] 등 생활상의 꼴불견도

23) 김영옥, 1927, 「내가 만일 농부가 된다면」, 『별건곤』 6호, 44쪽.

24) 나원정, 1927, 「현대식 가정에 신 유행하는 금붕어 지식」, 『별건곤』 8호, 117쪽.

25) "한가지 기괴망측한 꼴은 웃방에 안저 콧물을 졸졸 흘리는 콩알만한 년 12,3세의 새악씨님이외다." 박춘파, 1922, 「嗚呼 지방농촌의 衰頹」, 『개벽』 22호, 79쪽.

26) '제발 덕분에 노예가 되어지이다' 하는 기괴한 축원을 하는 일도 잇다. 김기전, 1921, 「청천백일하에서 이 적은 말을 감히 여러 형제에게 들임」, 『개벽』 14호, 17면.

27) 세검정인, 1922, 「道詵庵 中의 만필 16제」, 『개벽』 27호, 2~24쪽.

28) 청오, 1924, 「잡관잡감」, 『개벽』 51호, 127~132쪽.

29) 기전, 1926, 「退步乎? 進步乎? 평안도지방의 일부인심」, 『개벽』 66호, 81~86쪽.

30) 장도천 · 김자안, 1927, 「지방색」, 『별건곤』 4호, 102~103쪽.

31) 김은석, 1927, 「지방색, 한천의 조개잡이」, 『별건곤』 7호, 145~146쪽.

32) 「이상한 사실, 기괴한 소식」(1925), 『개벽』 62호, 83~85쪽. 이 칼럼에서는 이완용의 벌금,

일일이 지적되었다.

요컨대, 1920년대 중반까지 '기괴'는 생활 개선과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계몽의 수사였으며, 식민지 기관과 관료의 부당한 처사나 행위를 비판하고, 합리적 질서의 확립을 촉구함으로써 소망스런 근대를 기획하는 반어의 수사였다.

3. 과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기괴/괴기'

합리적 질서의 확립을 촉구하는 반어의 수사로서 '기괴'는 奇와 怪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근대의 기획을 반영한다. 대상의 이해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시하는 '교묘하다(⑤), 수수께끼와 같아서 도무지 알 수 없다(⑥)'는 의미의 영역이 발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⑤와 ⑥의 의미는 주술적인 사고나 불합리한 제도 · 풍속을 반어적으로 형용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작용하지만, 논리적으로 파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이해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것으로 환치하고자 하는 욕망과 결합하면서 독립적인 의미장을 이룬다. 이는 奇와 怪가 지칭하는 기형 이태가 근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식 욕망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⑤와 ⑥의 의미장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교묘한 범죄 사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의 발생을 보도하는 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안주의 기괴한 폭발 —사람이 중상하고 우차 파괴, 폭발탄인가 화약인가 의문의 폭발 사고」(『동아일보』 1923년 4월 16일자), 「警官臨場中 강도를 범행—범인 탈주로 진상은 몰라, 기괴한 사실 정체」(『동아일보』 1929년 9월 3일자), 「昨夕 북행 열차 중에서 현금 이만 원 분실 (…)현송 도중의 기괴사」(『동아일보』 1930년 10월 9일자) 등등[33]의 헤드라인에서 '기괴'는 과학적인 수사와 해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지시하는 데 동원된다. 한편, 「국경 사림지대에 기괴한 '骨疾' 유행—이 병에 한 번 걸리기만 하면 수족이 이리저리 구부러져」(『조선일보』 1929년 6월 24일자) 「기괴한 수병섭생—소와 닭에 병원 알 수 없는 병, 전문 연구 기관이 필요」(『조선일보』 1929년 6월 17일자) 등에서는 수수께끼의 병을 '기괴'한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의학의 발전과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929년 간행된 최남선(崔南善)의 잡지 『괴기』는 계몽 담론에 기반한 근대 지식욕이 '기괴/괴기'라는 기형 이태의 형용과 결합함으로써 과학적 탐구를 촉구하는 '기괴/괴기'의 계몽적 의미를 근대 학문의 차원으로까지 고양해낸 경우에 해당한다. "조선 생활 及 其 문화의 학술화"[34]와 "학리의 취미화"[35]를 목표로 발간된 이 잡지가 '괴기' 라는 유별난 이름을 표제로 앞세운 이유의 일단은 서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사실이 소설보담 奇異하다는 말이 잇다. 그런데 이 말의 적실함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 인문에 관한 근대의 과학들이다. 인성의 秘奧와 인생의 斷層이 어찌에 怪奇와 驚異에 충만되엿는지는 인류문화의 深林을 치고 드러가는 우리 학도들의 새록새록 발견하고 感入하는 바로 뜻하지 아니한 神詩秘劇과, 素樸한 현실 그대로의 위대한 예술이 이르는 곳마다 우리의 眼匪으로 튀여드러오며 耳

미국의 진화론 강의 금지, 조선인이 적은 경성제대 조선문과, 언론 탄압 등등과 더불어 최남선의 음풍농월하는 태도를 꼬집고 있다.

33) 그 밖에도 「기괴한 살인사건 —노부부를 곤봉으로 타살 강도의 소위인지 사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조선일보』 1926년 1월 8일자; 「자살한 3여생 멀쩡하게 생존? 기괴 복잡한 사건 내용」, 『조선일보』 1927년 6월 16일자; 「숙직중 순사가 자기피복도난—정복은 알엣것을 가저갓다, 이리서의 기괴한 봉변」, 『동아일보』 1929년 6월 24일자 등등. ⑤, ⑥의 용례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에 걸쳐 나타나며,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상대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34) 「독자께」(1929), 『괴기』 1호, 동명사, 59쪽.

35) 「人及朝鮮人에게 소리친다」(서문)(1929), 『괴기』 1호, 동명사, 3쪽.

棄를 시처간다.[36]

인용된 서문의 첫머리에서 최남선은 "素樸한 현실 그대로" 탐구하고 기록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최남선이 지칭하는 素樸한 현실이란 "괴기와 경이에 충만"한 "인성의 秘奧"와 "뜻하지 아니한 神詩秘劇"으로 가득한 현실이다. 즉, 인성의 어둡고 가려진 측면, 인간 삶 가운데 숨어 있는 비밀스럽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야말로 "사실이 소설보담 기이하다"라는 경탄을 자아낼 수 있는 인간 삶의 진실이라고 본 것이다. 이 숨겨진 진실들은 「남녀 생식기의 상형자(象形字)」, 「성적(性的) 기술(記述)에 담솔(率)한 지나 고대의 문헌」, 「고금동서 생식기 숭배의 속(俗)」[37] 등과 같이 언급이 회피되지만 인간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성담론이나 「하느님의 身原조사」, 「심령현상의 불가사의」, 「종교문화의 본원인 마나신앙」 등과 같이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신적,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사고로 구체화된다.[38] 이처럼 은폐된 인간 삶의 이면, 불가해한 정신 현상, 신 · 종교 등과 같이 경이적인 기원의 문제 등을 압축적으로 표상해 주는 어휘가 '괴기'였다. 나아가 '괴기'는 "조선을 중심으로 하는 (…) 문화 과학의 통속 취미 잡지"를 표방하는 이 잡지의 대중 지향적 성격을 반영하는 어휘이기도 했다. '괴기'가 시사하는 기형 이태의 표상이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호로서 학술의 취미화, 대중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에 부응했던 것이다.

통속화, 취미화를 표방했지만, 『괴기』에 실린 기사들은 대단히 학술적이었다. 성적, 원시적, 신이적 소재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소재들을 기술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비교문화학, 비교언어학적인 토대에 입각했으며, 논의의 사실성, 객관성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기괴한 嗜好: 식욕도착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월경혈, 똥, 개미, 부스럼, 진흙, 백묵, 시체나 아동의 고기, 처녀의 혈액 등을 먹는 충격적인 행위를 소개하는 란에서도 이것이 히스테리라는 정신병리학적 증상 혹은 종교적 신앙 행위의 일종이라 설명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요컨대 『괴기』는 다양한 민족의 풍속과 관습을 두루 살피는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토대와 조선인의 정체성을 과학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한 규칙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39] 각 민족의 생식기 숭배나, 생식기 상형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다든가, 고대의 통상 관계를 고찰하고 신화 · 전설을 비교하는 학술적인 노력은 동물적인 생식의 차원에서부터 신이적인 믿음에 이르기까지 불가사의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 삶의 원리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자기네의 문화를 자력으로 학술화"[40]할 수 있는 근대적 지식의 설립을 도모하는 방법이었던 셈이다.

최남선의 『괴기』가 근대 지식의 차원에서 불가해한 삶의 영역들을 학문적, 객관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면, 192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하는 탐정소설은 과학적 수사와 논리적 추리를 필요로 하는 이해 불가능한 사건을 가리키는 기표로 '기괴/괴기'를 이용함으로써 과학적인 탐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용어로 '기괴/괴기'를 활용했다.

1918년 『태서문예신보』에 '탐정기담'이라는 표제로 「충복」이 연재된 이래, '기괴탐정소설' 『813』(『조선일보』, 1921), '탐정기괴' 『겻쇠』(『신민』, 1929~

36) 앞의 글(주 35), 2쪽.

37) 2호에서는 「매음의 기원은 종교적 의식으로서」, 「일본고대의 성애문헌」, 「기괴망측한 연애성욕의 種種相」, 「조선어 생식기 칭호는 인도어로서」와 같은 기사를 싣는 등, 성애와 성욕에 관한 문제는 『괴기』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38) 1호에서는 「남녀 생식기의 상형자」, 「성적기술에 담솔한 지나 고대의 문헌」, 「심령현상의 불가사의」를 묶어 따로 "괴기문헌"이라는 별칭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39) 류시현, 2005,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 따르면, 최남선은 일본을 통해 수용한 근대적 학문 방법론을 바탕으로 조선의 전통(민속, 종교, 역사) 등을 탐구함으로써 조선적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괴기』는 비교문화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조선학 연구의 일환이다.

40) 「人及朝鮮人에게 소리친다」(서문)(1929), 앞의 책, 2쪽.

1930)의 예와 같이 탐정소설은 '기담', '기괴'라는 어휘를 장르명으로 동원하곤 했다. 또, 탐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성립하기 시작했던 식민지 중반의 '탐정소설'은 대부분 첫머리에서 사건의 성격을 '기괴'한 것으로 언표하면서 추리의 서사를 시작한다. 상식적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의 난해한 성격은 탐정 서사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고, '기괴'는 이 같은 사건의 기이한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어휘였다. '기괴'라는 말이 장르 표제에 동원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탐정'이 그 자체로서 아직 대중에게 독립적인 장르로 인식되지 못했던 무렵, '기괴'는 '탐정' 행위가 필요한 상황을 지시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설명을 보조했다. 즉, '탐정기괴'라는 장르명은 '수수께끼 같은 사실'(기괴)을 '조사, 탐색'(탐정)해서 풀어내는 이야기라는 설명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다.[41]

주목되는 것은 '기괴'가 이처럼 해결을 기다리는 탐구의 대상을 지칭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하며 흥미진진하다'(⑬)라는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게 된다는 점이다. 식민지 중반 대중사회에서 '기괴' 한 것을 탐구하는 일은 "普通과 平凡을 떠나서 奇怪한 神秘境을 探險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미쓰터리 헌터"가 신유행어로 등록될 만큼 공공연한 유행 현상의 하나였다.[42] 기괴한 것에 대한 관심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로 지탄받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찬탄을 얻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취미의 하나로 전환된 것이다.[43]

41) 여기서 '기괴'는 사건의 이해 불가한 성격을 표현하는 기표로서 영어 Mystery의 번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안회남의 「탐정소설론」, 『조선일보』 1937년 7월 13~16일자에서는 '괴기소설'을 '미스테리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환언하고 있다.

42) "미쓰터리 헌터(Mistery hunter): 普通과 平凡을 떠나서 奇怪한 神秘境을 探險하는 사람, 獵奇趣味를 조와하는 사람", 「모던語辭典」, 『新滿蒙』(1932.12), 41쪽. 이 설명에서 '기괴'는 'Mistery'를 번역하고 있는 셈인데, 여기서 기괴한 신비경을 탐색한다는 것은 남다른 탐구심과 모험심을 바탕으로 과학적 기지와 행동력을 구비하고 새로운 것을 탐사하는 능동적 태도를 가리킨다. 1930년 9월호 『별건곤』에 실린 「골상학상으로 본 조선역군의 얼굴」, 104쪽에서는 "기괴함을 조와"하는 인물의 성격을 유쾌한 탐구심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43) 이상 탐정소설과 '기괴' 관련 논의는 김지영, 2010. 5. 7~8, 앞의 글 참조.

그러나 이 같은 흥미 기호로의 전환은 근대 학문의 증진이나 생활의 합리적 개선에 '기괴/괴기'의 수사를 동원했던 계몽 언설의 의미 전유 방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흥미 기호로서의 '기괴/괴기'는, 과학적 탐구와 합리화를 촉구하는 계몽의 언설보다 192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통속적 대중문화와 더 쉽게 결합했다. 과학적 탐구심을 야기함으로써 식자층의 관심을 끌었던 탐정소설의 기괴 취미는 논리적인 추리보다 사건의 충격적이고 선정적인 묘사나 악마적인 범인의 성격을 탐닉하는 데로 편향됨으로써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기호로 기울어졌고,[44] 반대로, 조선인의 신화적 기원이나 은폐된 삶의 영역을 학술화하고자 했던 최남선의 『괴기』는 대중의 호응을 거의 얻지 못했다.[45] '괴기'를 학술화하고자 했던 최남선의 시도가 당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상정했던 '괴기'가 다음 장에서 다룰 새롭게 부상하는 '괴기'의 의미와 일정한 괴리를 이루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기괴/괴기라는 언표를 통해 모호하고 불분명한 삶의 영역이나 수수께끼와 같은 현상들을 과학 탐구의 대상으로 환치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재구성하려 했던 시도는 1920년대 후반 급격히 확대된 통속적인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다.

44) 탐정소설이 추리 대신 충격적이고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나 범인의 마성적 성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은 일제 식민지 과학교육의 제한과 관련이 깊다. 김지영, 2010. 5. 7~8, 앞의 글 참조.

45) 『별건곤』에는 "육당 최남선 대대 선생님에서는 아마 중취원 잠 안이 깨신 모양이지? 기괴가 망측하게 나오고" 〔「엽서통신」(1930.2), 『별건곤』 26호, 89쪽〕라고 하며 잡지 『괴기』를 비꼬거나, "六堂 崔南善선생님이 奇怪라는 個人雜誌를 발간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 알 수 업는 일이다. 지금의 조선 사람이 그러한 야릇한 刺戟을 요구하는 바도 아니겟고 또 설마하니 선생님이 그런 야릇한 취미를 가질 변태심리는 아니겟는데" 〔「알 수 업은 일」(1930.3), 『별건곤』 27호, 81쪽〕라는 식으로 의혹을 표하는 글들이 실린다.

4. 그로테스크 개념의 유입과 공포의 취미화

1929~1930년을 기점으로 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괴' 외에 '괴기'라는 어휘의 용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까지의 잡지 『별건곤』, 『삼천리』에서 기괴(긔괴)가 사용된 기사 수는 총 201건이다. 이에 비해 '괴기(괴긔)'가 사용된 기사 수는 37건으로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데, 두 잡지 모두에서 '괴기'의 용례는 193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여 1930~1933년 사이의 용례가 가장 많다. 1920년대 『개벽』의 경우, '기괴(긔괴)' 사용 기사가 94건인 데 반해, '괴기' 사용 기사는 1건에 불과하다. 1920년대까지 '괴기'는 그리 활발하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신문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동아일보』의 경우 헤드라인에서 '괴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9년 12월 12일 「괴기한 〈에드가 아란 포〉의 死因」이라는 기사였다.[46)]

기담과 구별되어 '괴담'이라는 용례가 증가한 것도 동일한 시기였다. 1920~1945년까지 『동아일보』에서 기담 기사는 48건이 등록되는 데 반해, 괴담 기사는 1920년에 1건, 1931년에 3건으로 총 4건뿐이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기담이 74건, 괴담이 19건 기록되는데, 그중에서도 괴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1931년부터 1933년까지에 해당한다. 이상의 통계는 1930년을 기점으로 '怪'를 앞세우는 어휘의 용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30~1933년 사이 상당한 유행을 형성했음을 알려 준다.

'괴기', '괴담'의 새로운 유행은 그로(그로테스크)라는 외래어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

46)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빨라서, 1927년 9월 29일자 「아마듀스 호프만 씨의 괴기소설」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그러나 1930년경까지 '괴기'의 용례가 희박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① 그로테스크: 원어는 로마 시대의 인공적 동굴(Grotto)에 있는 장식으로부터 나왔다가, 전환되어 부자연, 불합리, 황당, 괴기 등의 형상이라든가, 또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황당무계의 공상적 형상에도 쓰인다. ―神田豊穗, 『大思想エンサイクロパヂア29: 文藝辭典』(1928), 동경: 춘추사.

② 그로테스크: 元來 狂妄한 인물과 공상적 동물을 삽입한 이상한 제재를 취급하고, 또 아라비아풍의 모양을 표현하는 회화(繪畵) 묘화(猫畵) 등과 조각의 장식 방식을 말한다. 중세기의 조각의 이상한 수완으로써 이를 그로테스크한 소재를 취급한다고 했다. 이 장식법의 취미는 문예 부흥기 중에 나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엘의 그로테스크한 작품이 현재에도 상존한다. (…) 보통은 괴기적 의미인데, 약자로 그로라고도 한다. 그로와 에로는 1930년의 총아가 되고 있다. ―麴町幸二 編, 『モダン 用語辭典』(1930), 동경: 實業之日本社.

③ 그로테스크: 괴기한 기괴한 이상한 모습의. 소설, 희곡, 회화, 조각 그 밖의 것이 괴기하거나 부자연스러워서 그것을 읽거나 보는 자에게 기괴한 느낌을 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방면에 사용하면 자주 변태성욕적 취미를 의미한다. ―桃井鶴夫, 『アルス新語辭典』(1930), 동경: アルス.

④ 그로테스크: 영어. 괴기. 기분이 나쁜, 보통과 달리 이상하다는 의미이다. 눈이 하나뿐이라거나 도깨비 같은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 적당한 예다. 그러나 에로가 왕성해 에 따라 갑자기 여기에 변태성욕이라는 의미가 첨가되어 에로 그로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물어뜯겨 죽을 것 같은) 무서운 세상이다. ―鵜沼直, 『モダン語辭典』(1932), 동경: 성문당.

①~④는 일본에서 그로테스크라는 용어를 해설한 사례들이다. 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로테스크는 먼저 문예 용어의 하나로서 소개되었다. ②~④는 이 용어가 세속 사회에서 도깨비와 같은 흉측한 대상이나 변태성욕을 가리키

는 말로 속화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문예사전』과 『근대용어사전』의 서로 다른 관점을 고려하더라도,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로테스크가 문예의 한 양식으로부터 변태성욕과 공포의 표상으로 전이되는 ②~④의 점진적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예 용어의 하나였던 그로테스크가 이처럼 신속하게 세속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에로-그로-넌센스' 문화의 유행 때문이었다. 1930년대 초 일본의 미디어는 '에로-그로-넌센스' 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47] 이 통속적 표어는 세계 대공황과 군부 체제라는 가시적인 경제적, 정치적 힘의 교차 속에서 당시 지식인들을 비정치화하려는 제국의 전략 속에서 발생했고, 실제로 지식인들의 좌절감을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었다.[48]

1930년대 조선의 취미 잡지에서 '에로-그로' 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동시대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에로-그로'라는 말은 자극을 통해 흥미를 유도하려는 대중 잡지의 통속적 경향과 결합하여 재빠르게 확산된다. 1930년대 초반 『별건곤』에서는 '에로-그로' 혹은 '에로-그로-넌센스'가 숙어처럼 붙어다니며, 통속적인 모던 취향의 첨단을 선도하고 있었다. 이때 '괴기'라는 용어는 '그로/그로테스크'의 번역어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⑤ 그로: 그로테스크(영어의 Grotesque)의 약(略)으로 괴기(怪奇)란 말이다. 본래는 황당 환기한 작품을 평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최근에 와서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낀 현대 사람들이 무의미한 위안으로 괴이한 것, 이상야릇한 것을 자주 찾게 됨을 따라 엽기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가서 이방(異邦) 수토(殊土)나 고대 민족의 진풍(珍風) 기속을 찾거나 혹은 세인의 이목을 놀랄 만한 기형 이태(奇形 異態)를 안출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괴기, 진기를 의미하는 '그로'라는 말이 성행한다. —「신어해설」, 『동아일보』 1931년 2월 9일자.

⑥ 그로테스크: 영어. 괴기하다는 뜻인데 넘우 에로틱하기 그 정도를 넘친 것도 그로테스크하다고들 쓴다. 예를 들면 식인종의 땐스가튼 것을 그로테스크한 장면이라고 할 것이다. 略하여 「그로」가 늘 병행되는 것이 20세기 울트라모던人의 조하하는 바이다. —「모던語點考」, 『新東亞』 15호(1933), 111쪽.

앞서 본 일본의 사전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대중 미디어는 그로테스크를 '괴기'로 번역했다. 새로운 용어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이던 '기괴'라는 어휘를 회피하고, 대신에 '怪'의 부정적 뉘앙스를 살린 것이다. 조선의 미디어들은 문예 양식으로서 그로테스크라는 말의 기원이나 그 구성원리 및 정서적 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이 해설들이 초점화한 것은 그로테스크한 형상과 이야기를 탐닉하는 현대인의 기호와 그들이 즐기는 그로테스크의 사례들이다. 식인종이 살아가는 이방의 수토, 고대 민족의 진풍 기속, "정도를 넘치"는 에로스 등 실질적인 소재의 차원에서 그로테스크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재들이 환영을 받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무의미한 위안"을 찾는 "현대 사람들"의 "엽기하는 경향"으로 진단되었다. 이 극단적 소재를 엽기하는 주체는 "20세기 울트라 모던人"이었다.

그로테스크의 번역어가 되면서부터 취미 기호의 하나로 부상한 '괴기'는, 과거 '기괴'의 의미장을 계승하면서도 잔혹성, 섬뜩하고 마술적인 분위기 등 공포를 환기하는 정서들을 중점적으로 표상하기 시작한다. 근대 계몽기까지 기형 이태의 진기한 사물이나 상태의 형상을 형용했던 '괴기'는 이제 피, 살인, 시체와 같은 잔혹하고 끔찍한 대상을 지시하거나 귀신, 유령, 괴물 등의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대상, 퇴폐적인 도시 문명과 같은 이해 불능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 영역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30년경부터 신문은 살인과 같은 잔인한 범죄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잔혹성을 지칭

47) 미리암 실버버그, 2002, 「エロ · グロ · ナンセンスの時代」, 『總力戰下の知と制度』, 東京: 岩波書店, 61~109쪽.

48) 채석진, 2005, 앞의 글 참조.

하는 어휘로 '괴기'라는 언표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밀감 상자에서 아동의 시체가 발견된 사건,[49] 표류하는 선박에 동강동강난 시체가 발견된 사건,[50] 친족을 살상하고 산신으로 가장하여 살인 자백서를 강요한 사건,[51]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취조받던 아버지가 급사한 사건,[52] 유기된 상자 속에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사건[53] 등등 '괴기'는 신체의 훼손 · 절단이나 친족 살인과 같은 잔혹한 살인을 묘사하는 데 동원되었고, 원숭이와 혼인하는 종족,[54] 유령이 나오는 건물,[55] 구경꾼을 식겁하게 만든 소복 처녀[56] 등과 같이 이색 · 야만적이거나 공포스런 현상들을 보도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잔혹하고 선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기호는 잡지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931년 42호에서 「대경성, 에로, 그로, 테로, 추로 총출」 특집이 실린 이래 『별건곤』은 「에로섹숀」, 「특별 독물」편 등을 기획하고 에로 기사와 괴담, 괴기 실화, 범죄 실화, 탐정소설을 게재하는 데 열을 올린다. 유아를 끓여 먹고 붙잡힌 여인,[57] 멜더스(Thomas Robert Malthus)의 인구론을 읽고 30여 명의 여성을 살해한 늙은 제대 군인,[58] 토막 시체를 가방에 넣고 돌아

49) 「밀감상에 아시(　屍) ―자살현장조사 가든길에 발견」, 『조선일보』 1934년 5월 26일자.
50) 「표류선 중에 괴기 ―동강동강난 선부시체」, 『조선일보』 1936년 2월 25일자.
51) 「迷信과 黃金에 얽힌 獵奇百% (四) ―假裝山神이 夜半登場, 殺人自白書强要. 無等山中의 怪奇劇」, 『동아일보』 1932년 1월 23일자.
52) 「本室所生 少年慘死 取調 받든 親父도 急死, 본처의 아들 죽자 아버지도 죽어 靑陽에 發生한 怪奇事件」, 『동아일보』 1936년 1월 7일자.
53) 「개성 교외의 괴기 ―유기된 상자 속에 人脚!」, 『동아일보』 1937년 10월 26일자.
54) 「현대 인류계의 괴기 ―猿類 결혼하는 종족의 존재, 기운이 세지 못한 남자는 결혼할 권리가 없어서 암원숭이를 길러 아내를 대신 삼는다고, 중국 사천성 벽지에 점거한 蠻族珍談」, 『조선일보』 1929년 8월 8일자.
55) 「5백 군중이 위집, 유령양관을 투석파괴 (…), 평양 번회가에 괴기」, 『조선일보』 1933년 8월 27일자.
56) 「거리의 괴담(1) ―〈호조다리〉 소복처녀, 대회일야 다리 위에 나타난 괴기, 〈떳다바라〉 쟁이의 식겁」, 『조선일보』 1933년 8월 7일자.
57) 신경순, 1930, 「식인사건의 심판」, 『별건곤』 29호, 43~48쪽.
58) 최병화, 1933, 「살인괴담, 늙은 살인마(일명 말사스鬼)」, 『별건곤』 64호, 38~41쪽.

다닌 在美 중국인 청년,[59] 배신한 아내와 친구를 동료와 함께 난자한 탈옥수,[60] 양성으로 태어나 28년 동안 여성으로 살다가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일본인[61] 등등 무시무시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특별 독물, 괴기 실화, 범죄 실화, 특호 실화 등의 이름을 달고 보도되었고, 이를 통해 '괴기/그로의 취미'를 생산/재생산했다.

섬뜩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범람하고, '괴기'가 그 같은 이야기를 표상하는 어휘로 자리 잡게 되면서, '기괴'라는 기표의 의미 중심 또한 이동하게 된다. 불합리하다 · 부당하다(⑦)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던 1920년대 중반까지와 달리, 1930년대 '기괴'는 끔찍하고 충격적이다(⑨)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례가 월등하게 늘어난다.[62] 이처럼 '괴기'와 더불어 '기괴' 또한 잔혹하고 선정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는 데 동원되면서, 비정상적 형상을 가리킨다 하더라도 선악과 미추의 차원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았던 '기괴/괴기'는 이제 중립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추와 악을 표상하는 음산하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드리우게 된다.[63] '奇'와 '怪'가 지시하는 '다름'이 공포의 정서를 지배적으로 표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59) 소천호, 1931, 「범죄실화, 가방속의 死미인」, 『별건곤』 44호, 28~30쪽.
60) 「죄와 벌의 인생, 무엇이 그들을 그러케 식혓나? ―탈옥수 심종성과 공범 김봉주의 범죄리면 비화」(1933), 『별건곤』 62호, 50~51쪽.
61) 「28년만에 여자가 남자된 이야기」(1932), 『별건곤』 53호, 28쪽.
62) 예컨대, 1933년 『동아일보』에서 1933년 헤드라인에 '기괴'라는 어휘를 포함한 기사는 총 8건에 해당하는데, 이 가운데 5건이 살인과 같이 잔혹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으며, 미신 기사가 1건, 수수께끼처럼 난해한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1건, 기형적 형상을 보도한 기사가 1건에 해당한다. 이는 총 17건의 사례 가운데 부당하다는 의미로 쓰인 기사가 7건이었던 1923년 예와 뚜렷이 차이나는 부분이다.
63) 식민지 시기 『조선일보』에서 헤드라인에 '괴기'라는 어휘를 포함한 기사는 총 30건이다. 이 중 8건은 살인과 같은 류의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 사건을 보도했고, 유령, 도깨비, 괴물 등의 섬뜩한 초자연 현상과 관련된 기사도 6건에 이른다. 그 밖에 최남선의 『괴기』를 소개한 기사, 모던 풍속을 비꼬는 기사, 미신이나 야만적 행위를 전하는 기사 등이 있다.

살인, 귀신, 마술 등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공포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괴기소설'이 일종의 장르 표제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다. 1927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호프만(E. T. A. Hoffmann)의 「콥펠유스」가 '괴기소설'로 소개된 이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조선일보』, 1932)가 '괴기극'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고,[64] 『별건곤』은 「土中의 惡魔: 고-고리의 〈우이-〉」(1930)[65]와 「공중을 나는 유령선」(1932)[66]을 각각 "러시아 괴기소설", "태서괴담"이라는 표제로 싣는다. 이 표제들은 조선에서 '괴기소설'이라는 장르가 아직 명확히 인식되기 전, 신체의 변이와 죽음, 살인, 마법 등의 소재를 통해[67] 이야기의 성격을 변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좀 더 본격적으로 괴기소설이라는 장르를 인식시킨 것은 탐정소설의 한 부류인 변격탐정소설이었다. 논리적 추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 탐정소설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격탐정소설이란 어휘는 에도가와 란포(江戸川亂步)를 대표로 하는 일본 탐정소설의 한 지류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연쇄 자살, 시체를 먹어 들어가는 미생물, 수돗물을 틀어 놓고 시체를 굳힌 시랍(屍蠟) 등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잔혹한 야수성과 공포, 극단적인 고통 · 쾌락 · 참극 및 그로부터 빚어지는 섬뜩한 비애의 정서를 강조하는 탐정물이었다.[68]

조선에서 변격 탐정물은 '괴기소설'로 자주 환언되었다.[69] 변격탐정소설

64) 「영화소개 — 괴기극,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조선일보』 1932년 7월 9일자.

65) 「세계각국유령담」(1930), 『별건곤』 34호, 138~146쪽.

66) 「태서괴담: 공중을 나는 유령선」(1932), 류방 역, 『별건곤』 55호, 44~46쪽.

67) 「콥펠유스」는 영혼을 빼앗는 마법사, 인형과의 사랑 등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는 약물에 의한 흉악한 변신을, 「우이-」는 사모하는 청년을 쫓는 여귀를, 「공중을 나는 유령선」은 마법에 의한 살인과 피신을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다.

68) 란포의 탐정물은 변격이 특히 환영받았는데, 발표 당시 "소설을 읽으면서 목구멍이 죄어드는 괴로움과 공포를 느꼈다 (…) 읽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라든가 "작품을 쓸 때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이상한 것을 생각해 내는 작가"라는 평을 받곤 했다. 에도가와 란포(2008), 「저자후기」, 『에도가와 란포 전단편집 3』, 김은희 역, 두드림 참조.

69) 다음 글에서 안회남과 김내성은 추리소설을 본격과 변격으로 구분하면서, 변격탐정소설을 괴기소설 혹은 괴기적 작품으로 명명한다. 안회남, 1937, 「탐정소설론」, 『조선일보』 7월 13~17일자; 김내성, 1994, 「추리소설론」(1939년 방송강연원고), 『비밀의 문』, 명지사.

에 대한 이해는 "괴담이라든가, 살인 사건이라든가, 비극 같은 것은 확실히 불쾌한 것에 틀림없습니다만 우리들은 흔히 무서운 이야기를 즐겨하고 잔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슬픈 이야기에 귀를 곧잘 기울입니다"[70]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로테스크한 서사에 대한 욕망을 하나의 미학으로 간주하려는 태도의 성립을 의미했다. 1930년대 말, 탐정 서사라기보다는 섬뜩한 인간 심리나 초자연적이고 秘意적인 세계의 묘사에 가까운 「백사도」(김내성, 1938, 『농업조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묘사와 변태 성욕자의 음침한 성생활이라든가, (…) 성격 파탄자의 허무적 다다이즘"[71]을 그리는 '괴기파' 탐정 작가를 주인공으로 삼는 「무마(霧魔)」(김내성, 1939, 『신세기』) 등의 작품이 출현한 것은 공포의 취미가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일이었다. 공포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작품의 출현은 '괴기/그로'의 기표에 의해 촉발된 공포의 취미가 보다 확산되고 보편화된 결과였다.

5. '에로-그로'의 세계상과 환멸의 모더니티

그렇다면 이처럼 공포의 정서를 환기하고 탐닉하는 장르가 생성되기까지 징그럽고 섬뜩하고 마술적인 것을 표상하는 '괴기'의 취미가 대중의 감각 속에 보편화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중세의 기괴/괴기 개념이 중립적이었다는 점, '괴기'와 동의어로 쓰였던 '기괴'가 1920년대 중반까지 주로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수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秘意와 공포의 기호로서 '괴기'가 짧은 기간 대중의 정서 속에 일반화된 데에는 적지 않

70) 김내성, 1994, 「추리소설론」, 앞의 책, 345쪽.

71) 김내성, 1994, 「霧魔」, 앞의 책, 317쪽.

은 사회적 감각의 변화가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괴기' 개념의 탄생을 촉발했던 '에로-그로'의 문화와 그 배후를 형성한 모더니티에 대한 당대적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동아일보』와 『신동아』의 해설에 따르면, 1930년경 그로테스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인식되고 있었다. 시간적으로는 원시적인 과거, 공간적으로는 야만적인 미개지, 인간의 차원에서는 과도하게 탐닉되는 동물적 에로티시즘이 그것이다. 실제로 신문 · 잡지는 야만의 풍속과 징그럽고 이색적인 동물들을 '괴기', '기괴'의 언표와 더불어 보도했고,[72] 1920년대 말부터 활발히 게재되기 시작한 '괴담' 기사에서는 귀신, 유령 등 초자연적인 심령현상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73] 그중에서도 그로(괴기) 이야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에로-그로' 기사였다. 잡지에는 '에로-그로' 이야기가 넘쳐났다. 「에로그로 백% 시체결혼식」(『별건곤』, 1931.8), 「세계인육시장 광무곡, 중국의 에로그로」(『별건곤』, 1931.12), 「에로그로 백-퍼센트 미인국의 파사, 진기무류의 재혼풍속」(『별건곤, 1932.1), 「여름의 환락경, 해수욕장의 에로그로」(『별건곤』, 1932.7) 등 '에로-그로'를 표제로 내세운 기사들은 물론, 간음죄에 대한 형벌로 재판관이 죄인의 아내를 간음하는 형벌을 가하는 오스트리아의 형벌 제도(「태서성적 기문집」, 『별건곤』, 1932.3)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희귀하고 잔인한 성적 형벌을 소개하는 기사(「에로섹숀, 性的刑罰奇聞」, 『별건곤』, 1933.9) 등은 반복해서 실리는 흥미 기사 중의 하나였다. 일본 여성의 고시마키 280여 개를 훔쳐다 옷과 터번을 만들어 간직한 인도인(「모던 복덕방, 깜둥이 변태색정광」, 『별건곤』, 1930.11), 아내와 간통한 바람둥이 왕에게 성병을 옮겨 복수한 남편(「에로섹숀」, 『별건곤』, 1933.9), 싱가포르의 나체 흑인 매춘부에게 휘감겨 넘어졌던 감상(「세계 인육시장 광무곡, 내가 혼난 남양미인」, 『별건곤』, 1931.12), 감옥에서의 성생활(「재옥중 성욕문제」, 『별건곤』, 1931.3), 수도하는 여승들의 성 욕망(「동정녀 80명 대녀승당의 수도니생활」, 『삼천리』, 1931.4), 나체 시위를 벌리며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고 남성들을 희롱하는 중국 여학생의 생활상(「성의 해방을 부르짓는 중국 녀학생」, 『만국부인』 1호, 1932.10) 등등 1930년대 초반 잡지들은 에로틱한 성 욕망이 빚어내는 갖가지 기형적 행태들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림으로써 그로테스크라는 새로운 취미 감각을 촉발하고 있었다.

성 욕망을 소재로 삼은 『별건곤』의 기사들은 살인, 변태성욕, 신체의 절단 등을 동반하는 충격적인 범죄와도 종종 접속했다. 양성체로 태어나 강간을 일삼은 일본인 여장 간호사(「특집 독물 대괴기 실화÷처녀귀! 처녀귀」, 『별건곤』, 1931.4), 48인의 여성을 강간 참살하고 그 고기를 내다 판 독일의 푸줏간 주인(「특호 실화, 인간적 잔인성의 극치, 여자 사십팔인 학살사건, 근대 범죄사상 경이!」, 『별건곤』, 1931.4), 죽은 애인을 기억하기 위해 시체의 피부로 책을 제본한 청년(「애인의 피부로 제본된 책표지」, 『별건곤』, 1930.8), 활불로 추대되어 매일 아침 처녀의 피 한 잔씩 마시기를 강요당한 정체불명의 사나이(「이마에 보석 백힌 남자」, 『별건곤』, 1932.7), 구혼 광고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도끼로 절단 후 집 뜰에 매장한 백인 남성(「근대 악한 독녀 퍼레이드, 여자 잡아먹는 남자」, 『별건곤』, 1933.11), 부정한 관계를 남편에게 일렀다 하여 심부름하는 소년을 간부와 더불어 타살한 조선인 여성(「조선초유의 大疑獄, 박석산 상의 살

72) 「세계진기인종 박람회」(1927), 『별건곤』 7호; 「현대 인류계의 괴기」, 『조선일보』 1929년 8월 8일자; 「몽고인의 생활」(1930), 『별건곤』 32호; 「아프리카 토인의 살인제」(1932), 『동광』 33호; 「인도왕궁비사 첨단결혼진담」(1933), 『별건곤』 61호 등은 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미개지로 인식된 지역의 '괴기', '기괴'한 풍속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막의 괴기: 먼스터라는 식물」, 『동아일보』 1931년 8월 15일자; 「심해의 괴기: 어류」, 『동아일보』 1931년 8월 20일자; 「사람이 만들어낸 괴기 동물」, 『조선일보』 1937년 11월 5일자;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괴기동물과 기형」, 『동아일보』 1937년 11월 27일자~12월 1일자 등은 비정상적이고 진기한 동식물을 소개하고 있다.

73) 「그짓말 가튼 사실기록 — 천하 괴담 상사뱀」(1929), 『별건곤』 18호; 「신출귀몰 기담편 — 세계기담, 의학적 괴담」(1929), 『별건곤』 22호; 「세계각국유령담」(1930), 『별건곤』 34호; 「태서괴담: 공중을 나는 유령선(下)」(1932), 『별건곤』 55호; 「기괴실화 마작살인」(1933), 『별건곤』 66호; 「녀름밤의 괴담」(1934.6.1), 『삼천리』 6권 7호 등은 귀신, 유령, 심령현상 등을 다룬 기사들이다. '괴담'으로 명명되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이전의 '기담'들보다 귀신담, 초자연적 현상 등을 다루는 예가 많다. 그러나 '괴담'이 반드시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담, 야담 등 고전에 기원을 둔 괴담은 초월적 현상을 포함한 곡절 있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소비되었다.

인사건」, 『별건곤』, 1931.1) 등등의 기사들은 에로의 욕망을 변태성욕, 엽기적 살인에 연계시킴으로써 인간의 야수성과 이상심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괴기'의 감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괴기'의 표상에는 또한 익명의 대중들이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는 근대 도시적 삶의 예측 불능한 위험에 대한 감각이 숨어 있었다. 위에서 열거한 변태성욕과 엽기 살인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이 일본, 미국, 독일, 중국, 인도 등 해외 대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는 그로(괴기)의 새로운 유행이 조선인 내부의 경험과 감각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유입되고 증식한 박래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실제로 '에로-그로'의 통속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했던 중심 계층은 근대 물질문명의 혜택을 입고 새로운 도시적 생활 감각을 체화하기 시작한 일군이었다. 『별건곤』, 『동광』 등 취미 잡지의 기본 독자층은 식민지 교육에 의해 기초 지식과 문식력을 획득한 식자층이었고, 이들 중 다수는 식민 본국에서 조달되는 일본어 잡지와 서적의 독자이기도 했다.

1920년대 중후반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소비 계층이 등장하면서 카페, 다방, 바, 백화점, 극장, 공원 등 근대적 문화 시설이 들어서고, 영화, 라디오, 유성기, 레뷰 등의 문화 상품들이 보급되면서 경성은 바야 로 근대적 소비문화의 시대를 맞는다. 신문과 잡지는 보도 기사 이외에도 화장품, 구두, 모자, 양산, 조미료 등 사치품의 광고를 실어 날랐고, 진고개의 다채로운 상품들로 신체를 장식한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은 빈축을 사면서도 그 이채로운 차림과 양태들이 끊임없이 미디어 지면의 전경에 배치됨으로써 시선을 끌었다. '에로-그로' 취미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물질 생활과 소비적 문화 기호의 산물이었다.

일본에서 '에로-그로-넌센스'가 대중 미디어의 선전 문구가 되었던 해가 1930년이었음을 상기할 때, 1931년 『별건곤』의 '에로-그로' 열풍은 식민 본국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통속 문화는 지식인의 관심을 비정치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던 식민 당국의 전략 속에서 지지되었고, 비정치화의 의도는 조선 미디어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상업화 경향과 효과적으로 접속했다.

식민 당국의 문화 정책을 배후로 한 '에로-그로'의 통속적이고 관음증적인 시선이 식자층을 포함한 대중의 취미 문화로 재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던'이라는 세계적 시간 감각 및 앎에 대한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각국의 진풍 기속과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도하는 기사의 화자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이었다. '에로-그로' 기사는 해외 토픽에 가까운 간접화된 이야기뿐 아니라, 상당수가 여행이나 유학 중에 구경한 해외 성매매 시장의 경험담을 보도하는 형태로도 실리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 기록에 충실할 뿐 그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는 편이었다.[74] 무비판, 무간섭적인 시선으로 사실만을 보도했던 것은 '에로-그로'의 만화경에 대한 탐구 또한 세계지의 일환으로 접근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무엇이고 고루고루 보아 둘 필요가 잇슬 줄 압니다. 엇재서 그러한 존재가 잇스며 수만은 여성들이 (…) 썩어가고 있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잇스니가"[75]라는 식의 앎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선정적인 호기심과 말초적인 기호를 은폐하고 인간의 추악한 이면에 대한 화제를 취미화할 수 있는 동력이었던 것이다.

한편, '에로-그로'의 기표와 더불어 전해지는 근대 대도시의 풍경과 사건들은 '모던'이라는 신문명의 코드와도 긴밀하게 접속했다. 조선에서 '모던'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27년경으로 '모던 걸'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면서부터였다.[76] 미디어에서 모던이라는 기표를 통해 피력되었던 것은 모던 걸, 모던 보이의 허영과 사치를 꼬집고 비판하는 언설들과 「모던 행진곡」

74) "이것이 누구의 죄냐"라는 한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세계인육시장 광무곡, 파리의 에로 만화경」(1931), 『별건곤』 46호, 33쪽.

75) 「세계인육시장 광무곡, 미국인육시장견문담」(1931), 『별건곤』 46호, 31~32쪽.

76) 박영희는 1927년 12월 『별건곤』에서 실시한 특집 「모-던껄 · 모-던뽀-이 대논평」에서 반년 전부터 서울에서 '모던 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박영희, 1927, 「모-던껄 · 모-던뽀-이 대논평: 유산자 사회의 소위 '근대녀', '근대남'」, 『별건곤』 10호, 114쪽.

(『동광』, 1931~1932), 「모던 복덕방」(『별건곤』, 1930~1931; 『혜성』, 1931), 「모던 과학 페지」(『동광』, 1932), 「모던 칼리지」(『별건곤』, 1930) 등과 같은 문화면이다. 「모던」 페이지들은 변화된 물질 생활과 세태, 해외 토픽들을 게재함으로써 동시대의 시간 감각을 키워나갔다. 1932년 6월호와 7월호에서 『동광』은 「모던대학 입학시험」이라는 난을 신설하고, "제네바는 어느 나라에 잇는가", "셀뤌로이드가 불에 타는가 아니 타는가", "파시스트의 양대 거두 이름?" 등의 문제들을 모던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초 상식으로 질문한다. 당시 '모던'의 감각이 잡다하고 파편적인 세계지의 모자이크식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 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파편적 知와 경험의 조합들로 구성된 '모던'의 감각은 새로운 물질문화와 도시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전통에서 벗어난 세계의 시간성을 지시하는 카테고리'[77]로 부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소비 계층과 문화 감각에 기반한 '모던'의 기표는 이국의 진경을 실어 나르는 기사들과 더불어 근대상에 대한 세계적 감각을 만들어 나갔다. '에로-그로' 기사는 「모던 행진곡」, 「모던 복덕방」과 같이 '모던'을 표제로 하여 동시대의 문물을 소개하는 옴니버스 칼럼에 자주 등장하면서,[78] '모던'에 대한 당대적 감각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괴기'는 '자극'과 '퇴폐'로 요약되는 '모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내장한 성격의 하나로도 기술된다.

> 모던-, 슐모던-, 씨-크, 잇트, 첨단, 첨단, 첨단. 세기말적 퇴폐 문화의 오색 등은 각각으로 변색되어 간다. 하루하루 마비되어 가는 모더니스트들의 오관은 강렬한 자극을 갈구하며 기괴한 독창을 찾아 집중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던의 색 등에 시각을 빼앗긴 그들은 드디어 맹목이 되고 과민한 백치가 되었다.[79]
>
> 현대인의 신경은 나날이 鈍해 간다. 현대 과학의 끈임업는 刺戟에 극도로 첨예화한 그들의 신경이 밟은 반동적 경향이리라. 이리하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부질업시 괴기를 찻는 일종의 獵奇癖이 생겻다. 구로테스크! 구로테스크! 裸體畵的 에로, 神話的 구로테스크, 이것이 현대인의 시들어 가는 命脈을 끄을고 나가는 위대한 매혹이요, 生命水다.[80]

인용문에서 모던의 성격은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신경'과 '첨단적이고 세기말적인 퇴폐 문화'로 압축된다. 강렬한 자극에 대한 갈망, 극도로 첨예화한 신경이 결집하는 곳이 "기괴한 독창"과 "괴기를 찾는 일종의 엽기벽"이다. 말초적인 자극과 퇴폐로 특징지어졌던 만큼 '모던'이 충동질하는 기괴 · 괴기성에 대한 미디어의 표면적 태도는 일차적으로는 부정적이었다. 『별건곤』과 『동광』은 경성의 미인좌, 카페걸, 레뷰, 형형색색의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을 첨단의 자극을 좇는 '기괴'한 존재들로 거침없이 매도했다. 조선의 '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도시 또한 '괴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제 도시를 탐사하는 여행자의 시선 속에서 상해, 리오, 샌프란시스코, 파리, 스톡홀름 등은 매음부, 무뢰한, 극빈층, 매독과 창병, 파리로 들끓는 변소, 광인, 나체화, 나체쇼가 난무하는 '괴기' 한 도시로 기술된다. "현대의 세계가 나흔 일체의 미추선악을 강렬한 네온싸인과 복잡한 음향 속에 교착하고 잇는 동양의 기괴한 大商 埠地!"[81]가 상해였으며, "표면을 일별하면 미항이나 이면의 일보를 드러서면 살인병자 무뢰한 매음부가

77) 미리암 실버버그, 2002, 앞의 논문 참조.

78) 소재의 다수는 해외토픽에 가까운 에피소드들이었다. 에로-그로의 신기호 자체가 자발적 경험과 감각의 산물이 아니었던 만큼 기사의 소재가 외부에서 구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79) 「모던-복덕방」(1930), 『별건곤』 34호, 150~151쪽.

80) 일기자, 1930, 「거인 김부귀를 료리했소」, 『별건곤』 32호, 125쪽.

81) 홍양명, 1931, 「상해풍경, 누-란 사건」, 『삼천리』, 37쪽.

가득찬 마굴"[82]이 리오였다. '모던'과 '괴기' 혹은 '모던'과 '에로-그로'는 이처럼 물질문명의 어두운 이면과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통속적 嗜好가 결합하는 지점에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합리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신문명 사회의 이질적인 면모들을 표상하는 공동의 영역을 마련해 나갔다.

그런데 모던이라는 동시대의 문화를 퇴폐와 '기괴/그로테스크'로 파악하는 이 같은 시선 속에는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태도가 숨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에로-그로' 세태를 기술하는 기사들은 대체로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합리한 성 풍속과 성형벌, 상상을 초월하는 항구 도시의 매매 현장은 물론, 잔혹하고 소름끼치는 변태성욕자의 연쇄살인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만 치중할 뿐, 비판적 성찰이나 선악의 판단은 희박한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로테스크상은 그 실천력과 행동성의 차원에서 학습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되기도 했다. 중국 여학생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근대적이다"[83]라고 평가한 한 필자는 "그러나 그곳에는 행동이 잇다. 무엇을 하든지 상해의 여학생에는 무엇이든지 실제적 행동이 잇다"고 소개하며 중국 여학생의 그로테스크한 생활 양태를 진취적 실천성의 효과로 평가한다. 국제도시의 퇴폐상과 그로테스크한 모던성도 앎에 대한 욕망 앞에서는 일차적으로 학습의 대상이었고, 자유로운 행동력과 진취적인 실천력의 차원에서는 그로테스크한 생활상 또한 선망을 자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의 그로 문화나 모던 세태에 대해서는 자학에 가까울 만큼 냉소적인 태도가 일반적이었다. 1931년 『별건곤』의 「대경성, 에로, 그로, 테로, 추로 총출」 특집에서 그로를 담당한 기자는 "조선에 그로가 잇나? 손바닥 가티 발ㅅ닥 되집힌 조선에 「그로」다운 그로가 잇슬택이 업다. 더구나 우리의 생활이 그러한 취미를 요구하기에는 넘우도 먹고 입기에 절박하여 잇지 아니한가!"[84]라는 불평으로 기사를 시작한다. 조선의 그로는 흉가 이야기 정도를 들 수 있으나 그나마 조선인들은 그것을 공포로 여길 뿐 즐길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불평하는 좌담회[85]의 기록도 보인다. 그로테스크를 퇴폐 문화의 일부로 치부하지만, 조선에 제대로 된 그로테스크가 없는 것도 불만인 것이다. 평양이라 하면 기생부터 연상할 것이 아니라 "도시로서의 그로테스크한 모던성"[86]을 재인식해 달라는 평양 태생 지식인의 호소는 역설적인 측면에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기생의 고장이라는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할 때, 도시로서의 평양이 지닌 그로테스크한 모던성은 한층 자 스러운 일면일 수 있었다. '그로테스크'는 도시의 기형적 문화와 嗜好를 표상했지만, 식민지 물질문명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도시 대중들에게는 그 역시 발전된 문화의 산물이자 앞으로 더 핍진하게 경험해야 할 미래적 지향태이기도 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로테스크한 모던의 퇴폐성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델리키트한 문화 기호에 대한 선망 또한 감추지 못했던 양면적인 태도 속에서 '조선의 모던'은 날카로운 비판과 自嘲의 대상이었다. 모던 걸, 모던 보이가 허영에 들뜬 "괴물"[87]로 매도된 데에서 드러나듯, 조선의 피상적인 모던 세태는 신랄한 공격을 받는다. 「모던이쓤」이라는 제목의 한 기사에서 임인생은 모던이쓤이 아메리카니쓤을 모체로 하는 일부 소비 계급의 문화적 생활양식으로서 그 안에 야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모던이쓤의 향략자는 신경병자, 변태성욕적인 문명병자들이라고 매도했다. 생산과 소비의 분열이 없어지고 지배와 피압박이 없어진 건전한 사회가 건설되면 모던이쓤은 일소

82) 홍운봉, 1935, 「각국 항구의 렵기행, 남미 〈리오항〉」, 『삼천리』, 147쪽.
83) 「성의 해방을 부르짓는 중국녀학생」(1932), 『만국부인』 1호, 85~89쪽.

84) 「대경성, 에로, 그로, 테로, 추로 총출」(1931), 『별건곤』 42호, 11쪽.
85) 「넌센스 본위, 무제목 좌담회, 본사사원끼리의」(1931), 『별건곤』 36호, 136~146쪽.
86) 주요한, 1930, 「평양, 평양잡기, 평양과 나」, 『별건곤』 32호, 55쪽.
87) 최독견은 조선의 인정미담을 전하는 한 기사에서 전통적 인정미의 상실을 현대인의 특징으로 보고,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을 "괴물"로 지칭한다. 최독견, 1928, 「동서무비 조선인정미담집」, 『별건곤』 12 · 13호, 243쪽.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88] 모던 생활에 입문하기 위한 방법을 강의한 한 칼럼에서는 무지 은폐술, 부모 속이는 법, 돈 없이 첨단의 멋을 창출하는 방법, 책임 회피법 등을 모던 대학 입문의 방도로 역설한다. "勤하면 부자 된다는 요술쟁이가튼 수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조선의 현실에서는 "경쾌한 破壞"[89]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자학적 냉소주의는 근면과 성실을 통해 합리적 근대를 창출하고자 했던 계몽 이념의 뿌리 깊은 절망에 닿아 있다.

> 다른 한 가지의 「스마트」가 잇나니 이것은 실로 민족을 害하는 大敵이라고 警鍾을 울리고 싶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름하야 도피적 「씨니씨즘」이라 한다. 우리는 청년 시대에 다 열렬한 리상을 가진다. 성실과 용감과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겟다는 헌신적 정신을 갖고 잇다. (…) 그러나 항해가 메츨 가지 못해서 환멸이 우리를 침노한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민중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은 결국 고생하고 손해보고 버림을 받는다. 그 대신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남을 해하려고 밤낮 궁리하는 사람, 비굴한 사람, 겉으로 젠체하고 속으로는 비렬한 행동을 하는 사람, 민중을 파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환영을 받고 상좌에 앉고 무엇보다도 괴상한 것은 상당한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 생겨난다. 모든 리상을 파괴하고 오직 「빈정거림」이 유일한 가치의 비판이 되고 만다.[90]

1930년대 초반의 냉소주의 풍조를 고발하는 윗글의 필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이 보답 받지 못하는 현실, 개인적 역량의 축적을 통해 민족 · 민중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계몽의 이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식민지의 상황을 도피적 씨니씨즘의 기원으로 진단한다. "환멸이 우리를 침노한다"는 그의 발언은 '비열과 비굴이 괴상하게 성공하는' 현실 앞에서 근면, 성실, 헌신으로 스스로를 책려했던 계몽 이념이 겪어야 했던 나르시시즘적 상처의 깊이를 실감하게 한다. 이 뿌리 깊은 절망은 '경쾌한 파양'만이 갈 길이라는 냉소주의와 쉽게 접속했고, 표피적인 모던의 풍조를 비판하면서도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적 시간성으로서의 모던에 대한 환상을 떨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이 모던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중의 굴레였다.

'에로-그로'의 통속 문화와 '괴기'라는 새로운 취미 감각은 이처럼 표피적인 모던을 꼬집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속되었던 세계적 모던에 대한 환상과 이 모던의 수준에 현격히 못 미치는 조선에 대한 이중적 자의식 위에서 발생했다. 잔혹성과 공포, 불가해한 신비경에 대한 호기심을 충동질하는 '괴기'의 취미 감각은 탈정치화와 우민화를 유도하는 자본주의적이고 말초적인 취미 문화와 계몽의 좌절에서 비롯된 자학적 냉소주의의 결합 속에서 발생한 환멸의 모더니티의 일부였다.

6. 나오며

오늘날 '괴기'는 야만성, 미개성, 전근대 사회의 마술성과 미성숙성을 표상한다. 그러나 정작 중세 한국에서 '괴기'와 '기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어휘가 아니었다. 중세의 '기괴/괴기'는 종종 빼어난 문장과 산수를 경탄하는 수사로 활용되었고, '괴기'와 동일한 한자로 구성된 '기괴'는 1920년대 중반까지 미디어에서 오히려 합리성을 증식시키기 위한 반어적 수사로서 계몽의 언설에 동원되곤 했다. '괴기'가 공포와 잔혹성, 신비를 표상하는 취미 기호가 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식민지 시기 '괴기'의 취미는 주술적인 관습의 잔재에 의거하거나 혹은 억압되어 있던 자기 안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내부의 잔인성과 야만성의 귀환을 직시하게 되는 자발적이

88) 임인생, 1930, 「모던이씀」, 『별건곤』 25호, 136~140쪽.
89) 「MODERN COLLEGE 개강」(1930), 『별건곤』 28호, 49~60쪽.
90) 「조명탄」(1931), 『동광』 22호, 60~61쪽.

고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괴기'의 취미는 소비적 대중문화의 발전, 지식인의 관심을 정치에서부터 이탈시키려는 식민 제국의 문화 정책, 계몽의 좌절로 인한 나르시시즘적 상처, 국경 너머의 타자에 대한 관음증적 시선과 앎에 대한 욕망 등의 복합 속에서 탄생했다. '에로-그로' 문화와 그로테스크 개념의 유입 및 울트라 모던의 유흥적 기호 등의 외부적 요소와 계몽의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절망,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던에 대한 양가적 환멸과 자학적 냉소주의가 잔혹성과 공포, 마술적 신비를 표상하는 '괴기'의 새로운 취미 기호가 성장하는 저변을 형성한 것이다. 이처럼 공포의 표상으로 변화하면서 '기괴/괴기'의 의미장 내에서 과거와 같이 묘사 불가능할 만큼 멋진 모양을 형용하거나 탁월한 것을 경탄하는 긍정적인 용례는 사라진다.

흥미로운 것은 모던 문화의 유흥적인 기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괴기'는 종종 '괴담'이라는 기표와 결합하여 오히려 전근대적 전설과 미개의 시대를 표상한다는 사실이다. 근대의 산물인 취미 기호가 그 태생을 은폐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을 전근대의 그것으로 전도시키는 현상은, 내부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타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근대의 자기 운동 방식을 확인해 준다. 1920년대까지 기담과 괴담은 아직 공포를 재료로 하지 않았다는 한 연구자의 지적[91]에서와 같이, '괴담=전근대=공포=괴기'의 결합은 근대가 새롭게 성립한 괴기의 기표를 통해 전근대를 호명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감각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까지의 취미 기호 '괴기'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두려운 낯설음(uncanny) 혹은, 억압된 타자들의 귀환을 통해 전율을 일으키는 공포와는 거리가 있었다. 1930년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괴담들이 실어나르는 공포의 수준이란 아직 귀신, 유령이라는 소재의 등장 차원에 머물렀으며, '괴기' 또한 타자에 대한 피상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잔인하고 불합리한 행위,

91) 이경돈, 2004,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집, 279쪽.

비참 · 추악하고 모순적인 삶의 현상에 대한 관음증적 탐닉의 嗜好를 이제 막 대중의 의식 속에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괴기'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율적 공포와 악마성 자체에 대한 탐닉으로 나아가며, 어떠한 사회 문화적 조건들이 이러한 취미를 정착시켜 나가는지는 앞으로 더 탐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개벽』, 『동광』, 『괴기』, 『별건곤』, 『삼천리』,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

2. 단행본

소래섭, 2005, 『에로 그로 넌센스: 근대적 자극의 탄생』, 살림.

3. 논문

김예림, 2004,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 『1930년대 후반 근대인식의 틀과 미의식』, 소명.

김지영, 2010. 5. 7~8, 「 '탐정', '기괴' 개념을 통해서 본 한국 탐정소설의 형성과정」, 『추리서사와 대중문화: 2010대중서사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단.

류시현, 2005,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숙자, 2005, 「괴기에서 넌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호.

이경돈, 2004,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집.

채석진, 2005, 「제국의 감각: '에로 그로 넌센스'」, 『페미니즘 연구』 5호, 한국여성연구소.

천정환, 2008, 「초기 『삼천리』의 지향과 1930년대 문화민족주의」, 『민족문학사연구』 36호, 민족문학사연구소.

최애영, 2008, 「엽기의 미학적 개념화를 위한 탐색」, 『대중서사연구』 20호, 대중서사학회.

미리암 실버버그, 2002, 「エロ・グロ・ナンセンスの時代」, 『總力戰下の知と制度』, 東京: 岩波書店.

Abstract

Conceptual Movement from '*Gi'goe*' to '*Goegi*': Mass Culture and Disillusionment with Modernity in Colonial Korea

Chiyoung Kim(HK professor of HAS at Hallym University)

Key Word : Horror, Taste, Goegi, Gi'goe, Modern, Modernity, Mass Culture, Media, Colonial Korea, Enlightenment, Grotesque, Eros, Sexuality, Nonsense.

'Goegi' is a Korean word which is usually translated into the English word 'grotesque'. The word was composed of two similar Chinese characters '*Goe* (怪)' and '*gi* (奇)', which indicated abnormality, in general. In the pre-modern times, '*Goegi*' or '*Gi'goe*' was not only used to indicate immoral subjects, but also to praise marvelous creatures in nature, as well as particularly great works of the literati. In the 1920s, the enlightenment movement made use of the word as part of an ironic rhetoric when it needed to criticize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officers. In this case, the words 'Goegi' and '*Gi'goe*' were used to raise the rationality of society. However, in the early 1930s, Goegi became a sign of a specific interest when it was adapted as a translation of the English word 'grotesque'. The word *grotesque* was imported in the early 1930s as part of a mass-media catchphrase, which can be translated as "Ero-Gro-Nonsense,"

which also set a major trend in Japan, at the same time. The catchphrase was supported by both the imperial government and the mass media. Wanting to turn the intellectuals' attention into non-political taste, the government's strategy was matched by the interest of the mass media. Becoming the translation of the word *grotesque*, '*Goegi*' came to define the taste for horror and ugliness, for the first time. The rise of this new taste was the result of diverse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the strategy of the colonial government, the traumatic despair of intellectuals due to the failure of the enlightenment, the desire for knowledge of others in foreign lands, and so forth.